

찬송 …… 주와 같이 걸가는 것 (430장) …… 다 같이

(1) 주와 같이 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 때 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 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꼭 나누어 보세요.



# 예 배 순 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설날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부름 ..... 인도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찬송 .....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 다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빛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며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 ..... 말은이

성경봉독 ..... 시편 1:1-6 ..... 인도자  
[다같이 시편 1편을 읽습니다]

설교 ..... 『복된 사람』 ..... 인도자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고 아프지 마세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세요, 사업 대박 나세요,” 라는 의미로 인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1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가득한 복”이 진짜 복이라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담는 사람만이 치열하고 각박한 삶 가운데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확신이 생기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는 원어의 의미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통하다 라는 원어의 뜻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23년 새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해에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푸르른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